

SK, SK차이나 홀로서기 “요구”

최태원 회장, 초기자금만 그룹에서 제공 ... 외부투자로 조달해야

최태원 SK회장은 7월1일 정식 출범한 SK그룹의 중국사업 총괄법인인 SK차이나(대표 박영호)가 홀로서기에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12일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SK차이나는 회사의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조달하는 Self-sustainable(스스로 지속가능한) 회사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잠재력이 큰 인적자원과 충분한 재원을 보유한 시장”이라며 “시드머니(Seed money: 초기자금)는 그룹에서 제공하지만 추가로 필요한 자원은 스스로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SK차이나가 있는) 베이징(Beijing)은 서울과 더불어 그룹의 헤드쿼터(본사)를 맡게 된다”며 “SK차이나가 본궤도에 오르고 경쟁력을 갖추면 관계사는 물론 외부에서도 투자를 자청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영호 SK차이나 대표(총괄사장)도 “그간 중국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조달하는 회사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그룹은 중국에 산재했던 SK그룹 각 사업분야의 영업과 조직을 통합·재정비한 조직인 SK차이나를 설립함으로써 그동안 부진했던 중국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7/12>